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 사업 지원

전북도, 보호지역 내 벌채 유보 소득 감소분 보전 등 올해 4억7400만원 투입

전북도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백두대간의 기반 구축과 함께 보호지역 주민을 자발적인 보호 주체로 유도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 가치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도내 남원, 무주, 장수 등 3개 시군, 147개 마을의 약 1만8,150ha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보호지역은 벌채 유예 등 일부 개발 제한이 뒤따른다.

이에, 정부는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지원된다.

지원을 통해 체감효과 증진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보호 주체가 되도록 유도한다.

올해는 도내에 총 4억7,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부지를 소유한 임산물 생산자에게 저온저장고, 임산물 보관창고, 건조기, 임산물 가공시설과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보호지역 내 벌기량이 지난 임목의 벌채 유보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 건강성 유지사업'도 실시된다.

보호지역내 산림보호를 위해 원목가

격, 인건비 등 변경에 따른 행정구역 별 표준 입목가격과 예금금리에 의거 벌채 유예에 따른 소득 감소분 지원으로 산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변에 지점, 위치, 거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안내관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화 활동 등 '백두대간 사랑 운동'도 병행한다.

허전 도 환경복지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허리와 같은 중요한 지역으로 그동안 많은 면적이 도로 건설과 농지 등으로 훼손됐으나, 최근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는 등 보호에 힘쓰고 있다"면서 "백두대간 보호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스마트 K-도서관 공모 선정

전북도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스마트 K-도서관 사업'에 선정됐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1년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지원 사업에 도내 5개 공공도서관(전주송천·익산모현시립·정읍기적·고창군립성호·부안군립도서관)이 선정돼 사업비 2.2억원(국비 1.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스마트 k-도서관 사업은 공공도서관 안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대중매체 콘텐츠로 제작·체험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시설별로는 익산모현시립도서관과 정읍시립기적도서관 내부 15㎡ 이상의 공간에 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 조성과 조명시설을 구축한다.

/유호상 기자

또한, 전주송천도서관과 고창군립성호도서관, 부안군립도서관은 30㎡ 이상의 공간을 마련, 미디어 콘텐츠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조명 등 관련 장비와 함께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부대장비를 갖춘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공도서관이 정보 이용과 문화 활동의 기능을 넘어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스마트 K-도서관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제작하고 체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봄철 개화기 과수 화상병 철저 방제 당부

전북도가 봄철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 농가에 과수 화상병(火傷病·Fire blight) 방제 활동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과수 꽃이 피는 시기에 벌이나 나비 등 곤충과 비바람을 타고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화상병은 잎 가장자리가 흑갈색으로 변하며, 줄기 선단부에서 마르기 시작해 꽃, 가지,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적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된다.

치료약이 없고 전염성이 강해 일단 감염되면 반경 100m 이내 과일나무를 뿌리째 뽑아 태워 묻어야 한다.

이로 인해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 농가에는 폐농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지난해 전국에서 744 농가 394.4ha가 피해를 보았던 만큼 전북도가 도내 농가에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전경 가위 등 작업 도구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또한, 4월 하순에서 5월 개화기에 벌, 나비 등이 감염된 꽃에서 화상병균이 묻어 전파되지 않도록 만개기(꽃이 전체의 80% 개화) 5일 후에는 농용신수화제 등 항생제를 살포해야 한다.

아울러, 과수원 주변에 중간기주(中間寄主: 병원균이 서식하는 식물)인 모과, 살구, 자두나무 등이 있다면 모두 베어내야 한다.

김창열 도 농산유통과장은 "예방 약제는 꽃눈이 부풀어 오르는 시기에 살포해야 효과가 볼 수 있다"면서 "방제



드론을 이용한 과수 화상병 방제 모습.

효과를 높여려면 흑성병 예방을 위해 살포하는 석회 유허함제를 화상병 약제 살포 일주일 전에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과장은 "올해부터는 화상병 사전 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며 "배 화상병으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WK뉴딜국민그룹,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기탁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5000만원 상당 덴탈마스크 100만장

WK뉴딜국민그룹(총재 박항진)이 지난 9일 전북도를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억 5,000만원 상당의 덴탈마스크 100만장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최훈 도 행정부지사, WK뉴딜국민그룹 박항진 총재, 박병형 미래전략총괄기획 본부장, 손재경 대외협력본부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완수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된 마스크는 14개 시·군 선별진료소, 요양병원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WK뉴딜국민그룹은 금융, 무역, 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마스크 기부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기탁해 주신



WK뉴딜국민그룹(총재 박항진)이 지난 9일 전북도를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억5,000만원 상당의 덴탈마스크 100만 장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WK뉴딜국민그룹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도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 및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닥터 헬기'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 '큰 힘'

2019년 6월부터 원광대병원에서 배치·운영해 도내 1000여명 응급환자 이송

지난 2019년 6월 원광대학교병원에 '닥터 헬기'가 배치된 이후, 도내 1,000여 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3월말 기준 1,038명의 응급환자를 닥터 헬기로 이송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닥터 헬기는 중증 응급환자 생존에 큰 역할을 하며 '하늘 위의 응급실'로 불린다.

산간이나 섬과 같은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이송 및 치료를 위해 119상황실 또는 의료기관(의료진) 요청 시 전문의를 포함한 응급의료 종사자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한다.

도내에는 지역의 거점 응급의료센터

로 원광대학교병원에 배치돼 있으며, 헬기 내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 정맥주입기 등 첨단 의료장비가 갖춰져 있다.

중증 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 있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엔 응급의료자원이 집중돼 있어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어려운 도서 및 산간지역은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동부권의 산간과 서부권의 섬과 같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도내에는 닥터헬기가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이송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있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가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이 출동하며, 기상과 환자 상황 등을 판단해 119상황실로 헬기 이송을 요청한다.

현장에 배치된 헬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며 치료하는 사이, 병원에 사전에 응급수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하게 된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현재 의사 1명이 탑승하는 닥터헬기는 도내에 1대가 배치돼 중증응급환자 이송 요청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닥터헬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봄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전북도는 봄철(3~5월) 어업활동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를 예방하고자 5월 17일까지 '봄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안전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전북

도, 시·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해 최근 화재·양광기 등 사고발생 업종 및 우려 업종 중심으로 어선과 낚시어선 100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선의 기관·전기

설비 등 화재취약 및 조업설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낚시어선 소화·구명설비 비치 여부, 출항 전 안전 및 비상대응 요령 등이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고용노동부와 20톤 미만 어선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내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을 중심으로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